

# 일부지역 영아의 기질성 경향에 대한 조사

전북의대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7집, 1980.

김 영 애

본 조사는 일부지역 영아의 기질성 경향을 알아보고 양육 방법에 따른 기질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대상은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3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영아 90명이며, 영아의 행동 형태를 묘사하는 95개 문항으로 된 Carey의 영아 기질검사 도구를 번안 보안한 심의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어머니에게 작성케 한후 별도 채점표를 이용하여 9개의 기질 영역에 대한 점수를 내어 평가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영아의 영역별 평균치가 규칙성, 접근도, 적응도, 기분의 질에서 Carey의 것보다 낮게 나타나며, 심의 결과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② 영아의 연령, 성별, 형제 서열과 기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연령에 따라 활동 수준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 성별로 볼 때, 접근도와 기분의 질과 민감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 < 0.01$ ), 형제서열별로 볼 때 규칙성과 주의전환도 민감도에서 유한 차이가 있어( $p < 0.01$ ), 연령, 성별, 형제서열이 기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③ 수유 방법에 따른 영아의 기질은 인공 영양이나 혼합영양이 모유 영아에 비해 규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p < 0.01$ ), 규칙적인 수유를 했을 때 규칙성에 기분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p < 0.01$ ) 수유 방법이 기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욕구충족 여부에 따라 반응의 강도, 지속력, 민감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 질병 유무에 차이가 있어( $p < 0.01$ ) 양육 방법이나 영아의 질병 유무가 기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일부도시 의료보호사업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순천간전 논문집, Vol. 6, pp. 197~235, 1980.

서 인 선

본 조사는 일부 소도시 지역 의료보호대상자중 1979년 7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까지 일차 진료기간에서 1회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 총 2,302명중 1가구당 1명의 카드를 무작위추출하여 병록지를 분석하였고 의료보호에 관련된 자료를 분류하여 의료보호 이용 실태및 이용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 1)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 583명중 남자가 41.9%, 여자가 58.1%로 여자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0~19세 연령군이 25.9%로 가장 많았고 60세이상 연령군이 20.8%였으며 특히 70세이상 연령군이 10.5%였다.

의료보호대상자 가족수 분포를 보면 저소득자의 경우 6인이상인 가구가 38.1%로 가장 많았고 생활무능력자의 경우는 고령의 독신자가 27.2%였으며 생활무능력자의 가구는 46.8%가 남성이 없는 가구였다. 따라서 생활무능력자 가구의 가구주는 51.3%가 여성이었으며 60세이상의 고령이 63.3%였다. 교육수준도 낮은 생활무능력자 가구주는 40.5%가 문맹이었으며 저소득자 가구주는 16.5%가 문맹이었고, 생활무능력자 가구주는 80.4%가 생업이 없었다.

2) 의사의 진찰 기록을 국제 질병 분류 A 표에 분류해 보면, 전염병및 기생충 질환이 42.4%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계 질환이 11.5%, 근골격계및 결합조직계 질환이 10.6%, 신경계및 감각계 질환이 9.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급·만성 질환별로는 급성 질환자가 63%, 만성 질환자가 37%로 나타났다. 연령별 질병분포는 30세미만 연령군에서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급성 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 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일차 진료기관 이용회수 및 진료권

본 조사대상자의 일차 진료기관 평균 이용회수는 2.9회였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6회, 60~69세가 4.1회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이용회수가 많아졌다.

환자의 집과 일차 진료기관까지 거리별 이용율은 도보 30분 미만과 버스로 30분 미만 이용자가 전 이용자의 90.4%였다.

#### 4) 1차 진료기관의 의료보호 이용상황

본 조사대상지역의 1년동안 의료보호 이용상황을 보면 전체 의료보호대상자중 23.5%만이 이용하였고 생활무능력자의 경우 전체 생활무능력자대상자중 17.9%의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가구단위 이용률은 전체 대상가구당 25.2%만이 이용하였으며, 1인당 평균 치료일수는 생활무능력자의 경우 7.5일였고 저소득자의 경우 5.4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일부 이용자 특히 만성 질환에 의한 계속적인 의료보호 이용과 생활무능력자의 인구구성상 고령층의 만성적인 질환에 의한 과도한 이용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위해서는 만성 질환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와 대상자의 낮은 교육수준에 맞는 의료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 및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의료보호 사업의 일차 진료 사업에 있어서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예방사업및 노인질환및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고

- 2) 지정의료기관 및 일차 진료기관 설정시 거리를 참작할 필요가 있겠고
- 3) 의료보호에 대한 홍보 및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일부 농어촌지역 모자보건요원 실태 조사

수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6집, pp. 135~163, 1980.

### 이 금 련

본 조사는 1979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현재 농어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 107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상황과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에 관한것을 물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보건요원 근무기간상황

보건요원로서의 근무기간의 분포를 보면 1년이하의 경우가 21.5% 인데 비해 현 분야(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 등) 종사기간의 분포에서는 1년이하가 48.6% 를 차지하고 있어 요원들의 분야간의 직책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원인분석과 앞으로의 보건요원의 결합계획수립등에 관한 연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2) 보건요원의 자격배경과 교육훈련상황

현직 보건요원(여기서는 주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들의 자격을 보면 간호보조원이 48.6%, 간호원 42.2%, 조산원 8.4%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간호보조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것을 알수있으며 이런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보건요원활동범위와 역할등을 재설정해 주어야 할것이다. 한편 교육훈련에서는 대부분의 보건요원들(82.3%)은 1회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교육훈련 참가율은 높은 편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중앙(국립보건원, 가족계획 연구원, 결핵연구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앞으로 교육훈련의 지방확산 기획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훈련의 내용을 보면 “가족계획”이 44.5%, “모자보건” 20.3% “결핵” 13.7% 등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포괄적인 보건사업수행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실제업무수행에 있어서 만족할만큼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요원들이 39.1% 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훈련기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응용이 될수있는 교과과정 내용, 학습방법 도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3) 보건요원의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